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

-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

최지현**

차례

1. 서론
2. 공창폐지운동과 민족의 보건 문제
3. 여성 주체의 해방 :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
4. 결론 : 여성 연대, 그 가능성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해방기 여성이 국민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 연대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공창폐지운동’이라는 여성 연대의 조력으로 여성은 신체·정신의 정화 과정을 거쳐 사회/가정으로 복귀(귀환)하게 된다. 이런 여성 운동의 주체들은 여성 해방을 위한 운동이야말로 ‘건국의 초석’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를 해방기 공창폐지운동을 다루고 있는 김말봉의 소설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화려한 지옥』은 ‘창기 출신’의 주인공 여성이 여성 단체의 조력을 받아 ‘여성’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창폐지연맹을 비롯한 여러 여성 단체의 활동 및 제헌의회 진출 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은 정부수립 이후 사회·정치 분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이는 여성 연대에 의해 가

* 이 글은 2008년 3월 한국여성문학학회 정기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 국문과 강사

능했다. 여성 주체는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집합적 의식이 팽배한 시기에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정치참여와 사회활동을 한 것이다.

핵심어 : 해방기, 귀환, 공창, 공창폐지운동, 여성 연대

1. 서론

1945년 8월 15일 ‘덴노 히로히토’의 대동아전쟁 종결에 관한 조서(종전조서) 발표는 일본의 패전 선언이자, 조선에 대한 식민지 규율 권력의 종결을 의미한다.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를 국가라고 한 베버의 말을 떠올리면, 조선의 해방은 곧 국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조선민중은 독립된 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조선으로의 지리적 귀환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내셔널리티를 회복하고자 했다.¹⁾ 동시에 조선인의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통의 언어, 기억,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²⁾

해방 직후 ‘조선 민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마치 조선으로의 지리적 귀환인양 조선민중은 현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으며, 귀환 서사의 주인공은 대부분 남성으로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주체들이다. “고통의 양”³⁾에 비례하여 ‘민족성’을 검증 받았던 당

1)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잔등(殘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7집, 상허학회, 2006, 171~200쪽. 정중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제4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131~157쪽.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歸還)』, 『한국문학연구』 제32집, 한국문학연구소, 2007, 515~542쪽.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제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61~193쪽.

2) 최지현, 『해방기 ‘조선어’와 민족의 기억-전재경의 『최후의 교실』과 이종수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2. 참조.

시, 그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글을 팔았다’든가, ‘일체에 협력했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식민지시기의 남성 수난에 대해 말하며, 이러한 고단한 귀환 과정을 거쳐 “돌아온 남자들”⁴⁾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순간 신생 국가의 국민이 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다르다. 여성은 건강한 남성과의 동반 즉 가정의 일원으로 귀환하거나, 강직한 조선 남성의 조력을 받고 귀환할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가령 여자정신대로 끌려갔다가 술집작부로 전락한 ‘순이’가 조선으로 귀환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엄홍섭의 『귀환일기』(『우리문학』 1946.2.)의 경우를 보면, 순이는 순결한 조선 민족의 피를 받은 ‘건국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조선 민족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순이라는 여성의 단독 귀환 과정 안에 건강한 조선 ‘청년’의 조력이 있다는 사실이다.⁵⁾ 즉 여성은 건강한 남성의 보호 하에 가족의 일원일 경우에만 ‘조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여성의 단독 귀환은 대부분 식민지시기 인신매매 등의 방법으로 팔려 나간 여성들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매춘 등의 행위로 더럽혀진, 또는 훼손된 신체를 지닌 존재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기 여성의 단독 귀환을 다룬 소설은 조선 내에서 그녀가 순결한 조선 민족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그 신체나 정신이 훼손된 여성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3) 이혜령은 해방기 “도덕감정의 차원에서 공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서의 ‘고통의 양’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고통의 비교는 단지 사회주의 세력을 긍정하고 부르주아 세력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모종의 죄의식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비교’는 조선 안에 있었는가, 아닌가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음에 주목할 바 있다. 이혜령, 『해방기 한국소설의 식민기억과 젠더』, 한양대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주최 제2차 한국-프랑스 국제학술대회, ‘점령의 기억과 섹슈얼리티:한국과 프랑스의 젠더사 비교연구’(2007.11.16.금) 발표 원고 참고.

4) 이혜령, 위의 논문, 3~7쪽.

5) 엄홍섭의 『귀환일기』에 나타난 여성의 귀환 서사에 주목하여 ‘젠더적 위계화된 귀환’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오태영의 앞의 글 참조.

민족으로의' 귀환은 보다 복잡해졌다.

김송의 「안개 속의 마을」(『백민』 통권 제5호, 1946.10.)에서 주인공 '복희'는 식민지시기 서울로 팔려가 유곽에 몸을 던지게 되어 포주의 빛을 갠기 위해 매음을 하다가 해방 이후 군정포고로 '인신매매가 금지'되자 유곽에서 풀려나와 귀향한다.⁶⁾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복희는 “재판정에 선 피고와 같이 머리를 숙으린 초최한”(93쪽)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러한 죄인의 형상은 여성의 '단독' 귀환이라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해방기 단독 귀환하는 여성들, 특히 유곽 등의 시설에서 매춘을 했던 여성들은 “나같은 썩어진 인간은 또다시 사회에서, 존재를 용허할 것인가”(94)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공창제도'를 폐지하면서, 특정 시설에 갇혔던 여성들은 사회로 풀려나온다. 이들 중 일부는 '사창'의 길로 들어서고, 일부는 '재활'의 길을 택해 가정/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방 이후 신생 국가 건설이라는 목적 하에서 사회는 이러한 여성들의 처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미군정기 '부인국'의 설치와 여성 단체의 조직 등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된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창폐지운동'이 펼쳐진다. 당시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인 김말봉은 공창폐지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화려한 지옥』을 발표하는데,⁷⁾ 이 작품은 “대중적인 서사문법을 통해 광복기 작가의 이념적 지향과 실천

6) 사실 군정포고 70호는 인신매매만 금지했을 뿐, 그것이 공창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7) 1952년 문연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地獄)』은 1947년 7월 1일부터 『佳人的 市場』이라는 제목으로 『婦人新報』(박순천이 1946년 5월 창간한 대한독촉애국부인회 기관지)에 연재되었다. 『화려한 지옥』의 연재 시기에 관해서는 최미진의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현대소설연구』 제3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을 참조했다.

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중소설”로 평가되어 왔다.⁸⁾ 이 글에서는 ‘창기 출신’의 주인공 여성이 공창폐지연맹의 조력을 받아 ‘여성’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조선의 해방 이후 여성 주체가 ‘국민’이 되는 과정 안에서 여성 연대의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2. 공창폐지운동과 민족의 보건 문제

매춘업(賣春業)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性交)하는 직업”이라고 할 때, 이를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하여 “경찰의 엄중한 감독하에 공정 가격에 의하여 성(性)이 매매되고, 그에 상응한 세금도 부과”⁹⁾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3월 <경부총감부령> 제4호로 발표된 <유곽업창기취체규칙(遊廓業娼妓取締規則)>부터이며,¹⁰⁾ 이를 공창(公娼)이라 부른다.

1945년 9월 7일 시작된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 군정 법령 107호 <부인국 설치령>에 따라 보건후생부 산하에 부인국을 설치하는데, 초대국장으로 임명된 고헤경이 취임하면서 부인국은 ‘부녀국’으로 개칭된다. 부녀국은 조선부인의 사회·경제·정치 및 문화적 개선에 관하여 군정장관에게 진언하고, 조선부인의 지위 및 복지에 관한 자료를 채집하여 그 조사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며, 조선부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정하는 기관이다.¹¹⁾ 특히 조선부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녀의 노동조건

8) 최미진, 위의 글 참조.

9)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40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71쪽.

10) 일본의 유곽(遊廓)은 1585년부터 공인된 매춘제도였으며, 1902년 일본에 의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일본 식민지시기의 공창 제도와 관련하여 손정목, 『매춘부-공창과 사창』,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참고.

11) 서울시 부녀과의 사업내용 및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구(區)단위로 부녀의

개선, 부녀의 직장 확대, 공업·농업·교육·예술 등 직업 및 가정에 처한 부녀의 복지, 관청사무에 대한 부인의 활동 범주, 보건 특히 임부의 보건 및 분만, 부인의 참정권, 매음부의 취체와 그 제도의 폐지, 불량 부녀와 그 교정방법, 부녀의 여행에 대한 일반의 보조 등에 관한 임무를 맡게 된다.¹²⁾

부녀국의 설치는 여성의 사회 활동의 확대로 이어져, 다양한 성향의 여성운동단체가 조직된다. 특히 1946년 11월 15일에는 우익성향의 여성단체들의 총 연합으로 ‘전국여성단체총연맹’(위원장 황애덕)이 결성되는데, 이들은 주로 “참정권의 획득, 여성문맹 퇴치, 여성 능력 계발 및 교육의 확대, 공사창제 폐지 등 여성권의 신장을 주요목표로 하는 한편, 여성의 전노력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 일념 하에 단독정부수립운동에 적극 나섰다.”¹³⁾ 이들 해방기 여성 단체를 조직한 핵심적인 여성들은¹⁴⁾ 중학 졸업 여성과 전문 및 대학 졸업 여성으로 그 “사명이 조선여성에게 누구보다도 그 부하(負荷)된 책임이 중대”했다.¹⁵⁾

여성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의 과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946년 3월 6일 조선부녀총동맹이 ‘공사창폐지 결

풍기문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장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한다. 부녀자의 계몽 및 사회교화, 부녀자의 생활개선, 부녀자의 직업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 수유아 및 임산부의 보호 지도, 부녀자에 대한 교풍 전도(傳導), 부녀자에 관한 조사연구[미군정청 보건후생부 부녀국, 『새살림』 1권 6호, 1947.10. 20쪽]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 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집, 역사학회, 1996, 163쪽에서 재인용.

12)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집』, 여강출판사, 1971, 309쪽.

13) 이배용, 앞의 글, 165~166쪽.

14) 이들의 공통점으로 첫째, 개신교 신자라는 점. 둘째, 학력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었고, 해외유학파도 다수라는 점, 셋째, 최고학력의 전문직 여성으로 교직 관련 직종에 종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4.6. 43~50쪽 참조.

15) 김훈(농무부차장), 『조선여성에게 보내는 부탁』, 『새살림』 2호, 1947.2.3.

의문'을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17일 미군정은 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계약의 금지령>을 발표한다. 이후 1946년 8월 10일에는 14개의 여성단체가 '폐업공창구제연맹(廢業公娼救濟聯盟)'을 결성하여, 구제사항을 토의하고, 그 내용을 하지 중장과 러취 장관에게 설명 진정하기로 결의한다.¹⁶⁾ 이처럼 '일제 잔재와 봉건적 악습의 철폐'와 '민족 보건상' '인권동등을 보장하는 법률의 기본 성격'상 공창제 폐지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¹⁷⁾ 부녀자의 풍기 단속 및 매춘업 단속을 목적으로 '여자경찰서'가 설치된다.¹⁸⁾ 이후 박현숙 등 여성의원들은 '금지령'이 아닌 '공사창폐지'에 관한 법령제정을 요구하며, "공창제도폐지에 관한 법령초안을 본회의에 제출"¹⁹⁾한다. 이에 미군정은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 등 폐지령> 공포하고, 1948년 3월 19일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 제16호를 발포함으로써, 공창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²⁰⁾

16) 『廢業 公娼救濟聯盟을 結成 市內 十四婦人團體서 總蹶起』, 『동아일보』, 1946.8.11. 2쪽.

17) 이배용, 앞의 글, 168쪽.

그러나 공창제 폐지운동과 동시에 공창들의 저항도 있었는데, '창기'들은 강제수용에 반대했으며, 성병검사에 모욕감을 느껴 반발하였으며, 생활 대책 확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8) 여순경 제도는 1946년 5월에 새로 생겨 초기에는 남자경찰서에 부속되었다가, 1947년 2월 17일 여자경찰서가 서울에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47년 7월 1일에 부산, 대구, 인천에도 생겼으며, 1957년 7월 20일 전국의 여자경찰서가 폐지된다. 여자경찰서가 관장한 임무는 "부녀자의 풍기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불량소년·소녀의 지도·감화 및 단속, 여성범죄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등이었지만 그 주된 임무는 매춘업 단속"이었다. 해방기의 『여자경찰서』에 대해서는 손정목의 「나비작전 - 종삼소탕기」(『도시문제』 41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78쪽.)의 설명을 참고했다.

19) 「입법의원 박賢淑 등, 공창제도폐지에 관한 법령초안 제출」, 『서울신문』, 1947. 3.27.

20) 공창제 폐지 과정에 관해서는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호, 역사학연구소, 2001, 207~243쪽; 이배용, 앞의 글 참고.

김말봉을 위원장으로 한 공창구제연맹에 참여한 14개 여성단체는 여자 국민당, 애국부인 동맹, 불교부인회, 천도교부인회, 대한독립촉성 애국부인회, 부녀총동맹, 여자기독교청년회, 여자국풍회, 한민당부인회, 여자청년단, 천주교여자청년회, 성병예방협회 등으로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은 여성 조직이라는 점에서 당시 ‘공창폐지’의 문제가 여성운동가들의 공통적 관심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여성 단체들은 ‘공창폐지’를 여성 해방의 구체적인 사례이자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 분석할 김말봉의 장편소설 『화려한 지옥』에 등장하는 ‘공창폐지연맹’의 실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공창구제연맹에서는 “百만원의 재원을 세워 시내 三개소에 수용소(희망원=希望園)를 설치”²¹⁾하여 ‘창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재봉, 요리법 등을 가르쳐 직업을 알선하며, 의료시설을 완비하여 성병을 치료하고 건전한 결혼을 주선한다.

‘공창구제연맹’은 ‘성병치료’, ‘교화치료’, ‘직업보도’라는 세 가지 지침을 강조하여 공창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실시(1948.1.15)하는데,²²⁾ 미군정 부녀국 기관지 『새살림』에 실린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연령이 어린 사람이 많고 출신지가 경상남도가 가장 많고 학력이 국문해득도 못하는 수가 태반인 것으로 보아 무식한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구령이며 우리 사회가 가난하기 때문”(23쪽)이라며, 여성 매춘업의 원인을 ‘무식’과 ‘가난’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두 가지(1. 보건 행정 방침 2. 후생에 관하여)를 소개한다.

1. 보건 행정 방침

가. 각 도(道) 보건후생국 예방의학과는 2월 14일 전에 공창 전부에 호(互)

21) 「更生의 「길」로 引導 百萬圓財團으로 希望園을 設置」, 『동아일보』, 1946.8.11. 2쪽.

22) 김용년, 「공창이 없어지든 날까지」, 『새살림』 제2권 제2호, 1948.4. 20~25쪽.

하야 성병검사와 치료에 관하여 지도할 것

나. 전염기에 있는 성병환자는 수용 또는 격리하야 이하(바, 사 항)의 방침에 의하야 비전염성이 되기까지 완전히 치료 후 방임케 할 것(주의 매독환자는 초기와 2기 현증(顯症)이 있는 자에 한함)

다. 수용 기한의 지축(知縮)과 경비 절약을 위하야 치료를 적극적으로 단기에 완료할 것이니 매독이 비전염성이 될 때까지 수용 또는 격리 치료하고 그 후에는 성병 치료소와 지방■에게 독려(督勵)하야 수의 통원 치료케하고 그 치료를 완전히 하도록 할 것이다.

(…중략…)

사. 각 지방 보건 후생부국은 성병 환자의 수용 급 격리에 또는 치료기간까지 경찰이 협력할 것이며 각 도 보건 후생 부국 예방의학과는 이 성병 환자가 비전염성을 증명하야 증명서를 교부할 것

2. 후생에 관하야

각 지방 후생당국에서는 보건당국과 협력하야 좌(左)의 조치를 할 것

(…중략…)

라. 공창대책에 있어서 공창의 전직자라는 것을 자타가 확인할 정도의 시책(施策)을 세우는 것은 한시 받비 정상생활로 조정(調整)하는데 지장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공창을 단체로 취급하는 것보다 구호(救護)을 요하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개인 취급을 받게 하도록 할 것.(24~25 쪽, 강조-인용자)

이 항목에 의하면, 민족의 보건을 위하여 전염기에 있는 성병환자는 ‘수용 또는 격리’하야 치료를 행해야 하며, ‘성병 치료 완료된 자가 구호를 원할 경우, ‘일반 구호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즉 ‘공창폐지연맹’이 제안하는 국가 정책은 성병환자에 대해 ‘국가 보건상 만전의 치료’를 한다는 보건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다. ‘공창 제도’를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민족의 보건의 문제인 셈이다.

이러한 민족의 보건 담론 안에는 공창제도 폐지로 유곽에서 풀려나

서울 거리로 쏟아져 나온 여성에 대한 처우 문제와 미군을 상대로 하는 ‘양공주’와의 구별 문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기 민족 담론장 안에서는 ‘공창제도’의 원인을 앞서 언급한 『새살림』의 조사 결과에서처럼 여성 개인의 ‘무식’과 ‘가난’으로 돌린다든가, 김송의 『안개 속의 마을』에서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로 단순화 시키고 있다. 특히 공창제도의 문제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수난의 사례로 보며, 조선인 남성의 존재를 은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개 속의 마을』의 복회를 유곽에 판 주체는 “돈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 아버지”(92쪽)이며, 조선의 해방 이후 공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복회와 같은 여성의 ‘착취와 박해’의 위치에 선 주체는 조선 남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창이 폐지된 과정에 대해 연구한 손정목의 글에 의하면, 식민지시기 공창은 ‘일본인 전용’, ‘한국인 전용’이 따로 있었다. 또한 한반도 내의 공창 영업자 510명 중 한국인이 207명에 달한다.

일제시대 서울에는 중구관내에 두 개, 용산구 관내에 두 개, 이렇게 네 개의 유곽이 있었다. 왜 두 개씩이나 하면 일본인 전용, 한국인 전용이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여하튼 일제시대 한반도 내 대부분의 도시에 유곽이 있었다. 당시의 매춘문제 권위자였고 폐창운동의 선봉에 섰던 이토오히데요시(伊藤秀吉)에 의하면 1929~30년 당시 한반도 내에는 모두 25개의 유곽이 있었고 공창 영업자가 510명(일본인 303, 한국인 207) 창기수가 3,170명(일본인 1,798 한국인 1,372)이라고 집계하고 있다.²³⁾

식민지시기 일본인의 집주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공창제가 조선 전영

23)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40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71쪽.

토에 공식적으로 인가된 이후 ‘강제적 산업화’로 농촌의 여성들에게 공장 노동이나 ‘공동 경작’ 등의 부업이 강요되었다. 이에 조선 여성들은 낮은 임금, 하층 서비스 직종 등의 형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는 성관념의 비속화와 인신 매매의 문제 및 매춘업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²⁴⁾ 특히 1940년대 총력전 체제 하에서 여성의 전쟁 동원을 단행할 때 ‘모성’을 이용한 여성동원정책이 시행된다. 종래 ‘양처현모’ 이데올로기에서 ‘모성’이 강조되어, “전쟁터에서 죽어간 남편, 아들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굳건히 ‘家’를 지켜내는 어머니를 영웅시하는”²⁵⁾ 등 모성 찬미 운동이 추진된다. 그러나 전쟁동원정책에 있어서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 여성에게 요구된 역할은 “징병, 징용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계발대상으로서의 母”이며, 일본 여성에게 요구된 역할은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서의 母”²⁶⁾이다. 다시 말해 조선 여성은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말살된 채 징용 징병에 반대하지 않는 계발 대상임과 동시에 창부(娼婦)로서의 위치였을 뿐으로 “여성으로서의 인권 말살, 모성의 말살”²⁷⁾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시기 여성 억압의 단적인 사례인 ‘공창’의 문제를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가 시행한 부당한 제도, 또는 일본인에게 ‘빼앗긴 성’이라는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없다. 특히 종전 이후 일본인 유곽업자들과 일본인 창녀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자,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일본유곽들은 한국인 유곽업자들이 접수”²⁸⁾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24) 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제54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78~85쪽 참조.

25) 장미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박사논문, 2007.2. 4장 “국가적 모성”으로서의 여성’ 참조.

26) 장미화, 위의 논문, 177쪽. 6장 ‘총력전 하 조선 여성 동원’ 참조.

27) 정진성, 앞의 글, 87쪽.

28) 손정목, 앞의 글, 72쪽.

조선의 해방 이후에도 ‘여성의 억압’은 조선인 남성에게 의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3. 여성 주체의 해방 :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

3.1. 여성의 자활과 정확의식

김말봉의 해방 후 첫 장편소설 『화려한 지옥』²⁹⁾은 식민지시기 아편 중독인 남편에 의해 유곽에 팔려간 오채옥이라는 여성이 해방 이후 유곽을 도망 나온 창기였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온갖 천대를 받으며 고난을 겪은 뒤 ‘공창폐지연맹’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가정의 어머니로 편입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과정은 당시 공창제도를 둘러싼 사회 분위기와 식민지시기 국가/가정에서 내쫓긴 여성의 국가/가정으로의 귀환이 ‘보건’의 문제와 연관되면서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월루’라는 유곽에서 간판 격으로 인기 있는 창기 ‘채옥’은 ‘황영빈’의 아이를 잉태한 뒤 유곽을 도망 나온다. 그러나 유곽에서 창기가 도망쳤다는 포주의 신고를 받은 경관을 피하려다가 채옥은 미군(흑인)에게 능욕을 당한다. 이후 글을 모르는 채옥은 공창이 폐지된 줄도 모르고 황영빈의 친구 김황룡에게 속아 ‘양공주’들의 숙소로 들어간다. 이내 채옥은 자신의 역할이 가정부가 아닌 미군을 상대로 하는 사창임을 깨닫고 그곳을 도망 나오나 김황룡에게 잡혀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한다. 이때 공창폐지위원회의 정민혜와 주영매의 도움으로 채옥은 자유의 몸이 된다.

한편 채옥이 황영빈의 아이를 잉태한 뒤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 황영빈은 백송희라는 기생의 딸을 결혼하자고 꾀어 매독을 옮긴다. 병원

29) 이 글에서는 1952년 출간된 단행본을 원본으로 삼았으며, 이하 인용은 해당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에서 매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충격에 휩싸인 백송희는 길에서 ‘공창폐지’ 배라를 나눠주고 있는 영매를 만나 공창폐지위원회와 연을 맺게 된다. 백송희는 채옥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그녀를 돕기로 하는데, 채옥이 황영빈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백송희는 황영빈에게 사실 여부를 따져 묻다가 황영빈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뒤 자살을 기도하나 미수에 그친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채옥은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된다.

살인현장을 목격한 채옥은 태아를 사산(死産)한 뒤 검거되는데, 그녀가 ‘창기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관은 그녀의 결백을 믿지 않아 결국 채옥은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백송희가 지수를 해 사건은 해결된다. 이후 채옥은 공창폐지연맹의 도움으로 희망원에서 재활활동을 한 뒤 간호부가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이후 병원의 의사와 결혼하여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다.

이처럼 창기 출신 채옥은 한 가정으로의 귀환에 성공한다. 그녀는 인신매매가 금지되자 사회로 쏟아져 나온 ‘깃뺏힌 조선의 딸들’ 중 한 명이었으며, 공창폐지연맹이 ‘희망원으로 오라’는 내용을 적어 배포한 배라, “국한문으로 된 어려운 문자가 섞인 이 배라를 읽을 만 한 학문을 가지지 못”(149)한 무식하고 가난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대부분의 유곽의 여성들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조차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이때 공창폐지연맹에서는 자유의 몸이 된 그녀들의 갱생을 돕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당시 그녀들을 격리 수용하여 치료 및 교육할 공간이 부족했기에, 공창폐지연맹에서는 우선 그녀들을 ‘전재민 수용소’에 모아놓고, “사람은 놀고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메리야스를 짜도록”(126쪽) 시키는 등 직업을 갖도록 소개해 준다. 그러나 “유곽에 있는 창기들은 상류와 중류 사이의 생활…… 비교적 호화스러운 생활”(127쪽)을 하고 있었기에 ‘공

장'과 같은 곳에서의 노동과 '전재민 수용소'같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이에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수수밤에 거적자리 위에 건사할려고 우리를 대려왔느냐 너희들 아니라도 우린 우리대로 살아간다"(127쪽)면서 유곽에서 풀려난 여성들은 뽀뽀이 흩어져 제 발로 '사창'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기 출신 여성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쫓아 '사창'의 길로 들어갈 때, 잉태한 자식을 낳아 키우려고 유곽을 도망 나온 채옥은 달랐다. 공창이 폐지된 줄도 모르고 스스로가 유곽에 묶인 빛을 갠지 않은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으며, '가정부'가 되어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갖은 고생을 하던 끝에 공창폐지연맹의 정민혜를 만난 채옥은 조만간 건설될 '희망원'에서의 재활의 꿈을 키우게 된다. 즉 채옥이 자기 뱃속의 자식을 낳아 키우려는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격리된 생활을 통해 몸과 정신을 정화시키고자 했다는 점 등은 그녀가 다른 유곽의 여성들과 다른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범적인 채옥은 다음의 두 가지 고비를 겪은 뒤 사회/가정으로 귀환한다. 그 첫째는 신체적 정화 과정으로, 오염된 핏덩어리를 떼어 버리는 일을 통해 창기라는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다. 백송희가 황영빈을 쏘아 죽이고, 자살미수에 그치는 현장을 목격한 채옥은 그날 영매의 집에서 조산을 한다. 백송희에게 '매독'을 옮긴 황영빈이 죽은 날 그의 자식은 '선천매독(先天梅毒)'으로 "태내에서 죽어서 나온 것이다."(335쪽) 이는 임질, 매독 등의 보건·위생의 문제가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같은 민족이지만 매독균에 감염된 황영빈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태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채옥이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채옥의 신체적 정화 과정으로 본다면, 「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소제목에서처럼 그야말로 '순리'에 따른 일인 것이

다. 이처럼 채옥이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민족 보전을 위해 오염된 피는 태어날 수 없다는 금기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채옥이 오염된 무엇을 배출해 내어 그녀와 ‘과거’를 연결시키는 끈이 끊어졌다는, 다시 말해 정화된 채옥은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오염의 결정체로만 그려지는 황영빈의 ‘핏줄’을 끊어낸 채옥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두 번째 고비를 겪게 된다. 살인 ‘누명’을 쓰고 심문을 받는 채옥은, “네가 창기가 아니냐 네게는 붓거러운 것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하는 신경은 송도리채 날아가버린 게집이 아니냐”(364쪽)라는 모욕을 인고해 내는데, 이는 채옥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화 과정인 셈이다.

「하나님이 보고계신다」

라는 신념은 그에게 있어 한 새로운 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중략…) 고민의 빛도 공포의 표정도 없는 듯되디 듯된 여인의 모습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공손히 꿇어 앉어있는 채옥은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창살 밖에서 감시하는 간수의 눈에 일종의 이채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370쪽)

하르르 떨리는 속눈썹 속에 고요히 닫혀 있는 두 눈이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가. 일제시절부터 지금까지 십팔 년간이나 간수노릇을 해오는 동안 이러한 죄수를 보는 것은 실이 처음이다.(402쪽)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은 채옥은 감옥 안에서 ‘종교’의 힘으로 ‘새로운 맘의 세계를 창조’하게 되며, 이러한 채옥의 순결한 모습을 보며 식민지시기 옥에 갇힌 독립투사의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숭고’함, ‘순결한 민족 정신’을 지닌 여성으로 채옥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려한 지옥』에서 ‘창기 출신’ 채옥은 육체적 오염의 정화와 정

신적 각성이라는 두 과정을 통해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보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매춘을 했던 여성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은 죄를 씻는 의식·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야 사회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 한 가정 안에 들어감으로써, 가정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국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채옥의 ‘성장’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여성 단체인 ‘공창폐지연맹’의 활동상이다. 채옥을 계도하는 인물은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 정민혜 ‘여사’이며, 희망원 설치에 기생출신인 양비취씨(송희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하여 건설된다. 여성 연맹을 둘러싼 ‘여성’의 연대와 협조에 의해 가능한 이러한 성과는 미군정 하 ‘부인국’의 설치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의 확대와 활동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3.2. 희생제의

알다시피 『화려한 지옥』의 정민혜 여사가 이끄는 ‘공창폐지연맹’은 실제 존재했던 ‘공창구제연맹’(위원장 김말봉)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지옥』의 오채옥이 ‘공창폐지연맹’이라는 여성 단체의 활동이 만들어 낸 성과라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한 엄홍섭의 『귀환일기』의 경우 건장한 조선인 ‘남성’이 여성의 귀환에 주요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김송의 『안개 속의 마을』의 경우 ‘남성’의 역할은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에 이르러서는 ‘여성을 위해’ 응징해야 할 ‘악(惡)’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 인물인 황영빈은 여성에게 ‘매독’을 전염시키는 ‘균’의 원천이자 ‘오염의 축’으로, ‘기생(의 딸)’이라는 대상의 계몽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려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화려한 지옥』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여성이 서

있으며, ‘황영빈’과 같은 남성에게 응징을 가하는 주체도 여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채옥보다 더 문제적인 여성은 ‘백송희’이다.

여대생 ‘백송희’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그러한 백송희는 약혼한 황영빈에게 ‘매독균’이 옮겨 병원에서 ‘매독’ 진단을 받고 나온 길거리에서 공창폐지연맹의 영매와 마주쳤을 때 “벌써 매독균으로 더러워진 자기 혈관”(119쪽)이 할킴을 당하는 듯한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매독에 감염됐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백송희의 눈에 비치는 여성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매독에 걸린 자신과 같은 ‘더러워진 피’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 채옥이 그 그룹에 속하며, 다른 하나는 “일은 봄날에 홀로 핀 흰매화같이 청초한 인격의 향기를 뿜트리고 있는”(125쪽) 정민혜와 같은 여성이 속한 그룹으로 주영매 역시 같은 그룹이다. 후자의 그룹에 속했던 백송희는 황영빈에 의해 전자의 그룹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오염된 피’와 ‘성녀의 피’라는 분류는 위생의 측면에서 여성의 ‘피’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백송희라는 여성의 시선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또 백송희라는 ‘여자대학생’의 지위는 매독에 감염된 이후 ‘살인자’로 변모하게 된다.

피스톨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과 꼭 같은 시각에 탕탕탕 연결혀 세방의 총소리가 났다.

『억- 억-』

두어번 비명을 지르면서 영빈은 뒤로 나가 자빠졌다.

그의 하-얀 이마에서 그리고 그의 오늘 가라입은듯 한 노-타이 겹으로 선혈이 펑펑펑 쏟아져 나온다.

실탄은 너무도 정확히 영빈의 머리에 정중된 것이다. 피스톨을 들고 한참 섰든 송희는 유쾌한 듯이 깔깔거리고 웃어댔다.(324쪽)

남산에서 백송희가 ‘황영빈’을 직접 총으로 쏘 죽이는 행위는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황영빈’으로 형상화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에 대해서 ‘여성’ 주체가 직접 응징을 가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백송희가 ‘기생의 딸’이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순간이자, 채옥과 어머니와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즉 여성 동질성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황영빈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 대한 증오와 이에 대한 응징이라는 ‘폭력’을 통해 여성 연대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황영빈’의 죽음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진행된다. 살인범을 찾는 수사는 바로 사회 혼란의 원인에 대한 수사이자, 공포와 원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의 모색이기도 하다. 그런데 『화려한 지옥』에서는 이 사건의 해결, 즉 살인범을 찾는 수사 역시 남성을 중심으로 한 ‘법’이라는 권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형사의 심문 결과 남성에게 해를 가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모든 책임은 (민족 보건을 위협하는) 창기 채옥에게 돌아가지만,³⁰⁾ 잘못된 법의 판결은 ‘신앙고백’을 한 백송희의 자백으로 뒤집힌다. 이때 ‘자백’한 백송희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면 그녀가 억압받아온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행위 역시 부정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 백송희의 ‘위법’ 행위는 ‘재판·법’이라는 거대한 남성 권력에 의해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 ‘성스럽게’ 추방(죽음)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해방기 민족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사회 전체를 보호·구출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위협 요소에 대한 불안과 증오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은 한 사람의 개

30) “범인은 일월루를 탈출하여 나온 창기 채옥이라 한다. 그는 죽인 사나이의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백송자(가명)와 약속한 것을 알자 질투를 못 견디어 권총으로 쏘았다는 것이다.”(389쪽)

인 또는 ‘희생물(victime emissaire)’에게로 전이된다.³¹⁾ 사회 안에서 수많은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민족 보전에 대한 공포’와 모든 원한·증오들은 황영빈을 살해한 백송희가 떠안고 ‘성스럽게’ 죽는 일종의 희생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 여성 연대, 그 가능성

미군정기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시기로, 한국 역사상 여성들을 주요 행정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정부기구는 미군정기에 발족한 부녀국이다.³²⁾ 고헥경 부녀국장은 부녀국 설치 이후 ‘조선 여성의 향상 발전의 길’이 넓어졌다고, “여성기관이 많이 조직 되었으며, 또 큰 기관들이 여성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여 여성 운동에 노력을 기우리고”³³⁾ 있다고 당시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 ‘새시대는 남녀평등의 시대’임을 인정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은 가정에 있어 남성을 오히려 리드하고 충실한 자녀의 교육과 취사, 침선을 천직으로 삼아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설적인 정신으로 매진한다면** 여성의 위치는 국가의 반석이 될 것이다”³⁴⁾라며 ‘선가정 후사회’라는 논리로 여성의 활동을 가정에 국한시키려 했다. 또 여성 국민의 역할 중 첫째는 “모성의 사랑”이라며 모성애만이 “따뜻한 가정의 낙원의 보금자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새로히 오는 국민의 동족애의 토대로 닦을 것”³⁵⁾이라며 ‘현모양

31)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5, 123쪽.

32) 정현주, 앞의 논문, 10쪽.

33) 『미국기자단과 조선 여성의 회견기』, 『새살림』 2호, 1947.2.3.

34) 김송, 『여성의 위치』, 『부인신보』, 1947.5.22. (강조-인용자)

35) 김훈(농무부차장), 앞의 글.

체'로서의 여성상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사회·정치 활동을 남성들만의 영역인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활동 영역을 가정에 국한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몇몇 지도부의 여성을 제외한 '남존여비와 여필종부만을 알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5·10선거에서의 여성입후보자 전원 낙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³⁶⁾

이처럼 여성들의 단체 운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화려한 지옥』의 공창폐지연맹에서 기획하는 '희망원' 건설에 대한 남성들의 평가에서도 드러나는데, 가령 영매의 오빠의 "그런일은 국가의 힘으로 할 것이야 뜻은 고상하지만 한 두 여자의 힘으로 될 것은 아니야!"(200쪽)라든가, 시장 K씨는 "공창을 폐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간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한 가지 꿈"(276쪽)이라며 평가 절하한다.

『그분은 마치 우리들이 갑산 기분에 날뛰는 작란이나 하고 있는 줄로 아는가봐?』

『그런것도 아니야』

정여사는 영매를 돌아보고

『씨도 우리 운동을 아주 반대 한다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공창을 폐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간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한가지 꿈이라는 거야요 그 여자들은 당신들의 구제를 바라지도 않고 또 설사 구제를 한다고 당신들의 그 플랜대로 희망원인가 하는 기관이 생긴다 합시다 그네들이 참다라케 와서 백여날상 싶소? 그들이 어떤 여인들인것을 알기나 하고 들 있고? …… 그것이 시장의 태도야……』(276~277쪽)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 속에서도 1946년

36) '여성의식의 흐름과 갈등 구조'에 대해서는 이배용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IV(1945~1948)』, 『여성학논집』 제13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6.12. 5장 참조.

8월 결성된 ‘폐업공창구제연맹’은 1948년 공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보건위생의 문제와 ‘창기’의 생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여성 계몽에 대한 논의들 속에 나타난 ‘정조관념’에의 집착은 오히려 ‘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낳았고,³⁷⁾ ‘창기출신’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비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결혼제도에서 배제되었다. 즉 식민지시기 일본의 총동원 정책에 의한 조선 여성에 대한 ‘모성말살’이 진행되었다면, 해방기에는 계몽위주의 정책에 의한 ‘창기 출신’ 여성에 대한 ‘모성말살’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여성 단체는 ‘창기출신’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 갱생할 수 있도록”³⁸⁾ 단기교화강습을 시키는 등 육체적·정신적 정화 과정을 거친 여성이 사회/가정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처럼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 운동가들은 사회/가정에서 배제된 여성의 신체·정신의 정화를 통해 사회/가정으로의 복귀(귀환)를 시도했으며, 여성 해방을 위한 운동이야말로 ‘건국의 초석’이라고 인식하였다.

대강은 알았습니다. 공창폐지의 사명은 횡(橫)으로 유곽의 여인들을 인도(人道)적으로 구원하자는 것과 또 종(縱)으로 민족보건을 위하여 성병을 박멸하자는 민족의 보건운동으로 볼 수 있구만요……. **공창폐지연맹이 야말로 건국의 가장 초석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132~133쪽, 강조-인용자)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은 가정 내의 어머니·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의 경계를 넘어, 여성 단체의 조력으로 ‘창기 출신’의 여성이 ‘여성’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창폐지연맹을 비

37) 양동숙, 앞의 글, 213~214쪽.

38) 『서울 市内 五百餘娼婦 解放의 街頭로 進出 問題의 公娼廢止 遂實現』, 『동아일보』, 1948.2.12. 2쪽.

롯한 여러 여성 단체의 활동 및 제헌의회 진출 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사회·정치 분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시켰으며,³⁹⁾ 이는 여성 연대에 의해 가능했다. 여성은 정치를 더 이상 남성 고유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고민했다. 조선 해방 이후 여성 주체는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집합적 의식이 팽배한 시기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정치참여와 사회활동을 한다.

39) 해방기 여성의 의회진출운동은 일제시대 정치적인 의식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정란, 「해방 후 국가건설과정에서 우익 진영 여성들의 의회진출운동」, 『역사문화연구』 제24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6.6. 참조.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말봉, 『화려한 地獄』, 문연사, 1951.
- 「更生의 「길」로 引導 百萬圓財團으로 希望園을 設置」, 『동아일보』, 1946.8.11.
- 「입법의원 朴賢淑 등, 공창제도폐지에 관한 법령초안 제출」, 『서울신문』, 1947.3.27.
- 「廢業 公娼救濟聯盟을 結成 市内 十四婦人團體서 總蹶起」, 『동아일보』, 1946.8.11.
- 김송, 「안개 속의 마을」, 『백민』 통권 제5호, 1946.10.
- 김송, 「여성의 위치」, 『부인신보』, 1947.5.22.
- 김용년, 「공창이 없어지든 날까지」, 『새살림』 제2권 제2호, 1948.4.
- 김훈, 「조선여성에게 보내는 부탁」, 『새살림』 제1권 제2호, 1947.2.3.
- 엄홍섭, 「귀환일기」, 『우리문학』, 1946.2.
- 편집부, 「공창 최후의 날」, 『새살림』 제2권 제2호, 1948.4.
- 편집부, 「미국기자단과 조선 여성의 회견기」, 『새살림』 제1권 제2호, 1947.2.3.

2. 단행본

- 공임순, 「민족 그리고 섹슈얼리티」,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427~459쪽.
- 손정목, 「매춘부-공창과 사창」,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442~519쪽.
-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집』, 여강출판사, 1971.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5.

3. 논문

- 김지혜,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 연구」, 동국대 국문과 석사논문, 2006.
- 박정미, 「미군 점령기 오키나와의 기지 성매매와 여성문제」, 『사회와역사』 73권, 한국사회사학회, 2007.3, 221~253쪽.
- 서정자, 「김말봉의 현실인식과 그 소설화」, 『문명연지』 제4권 1호, 한국문명학

- 회, 2003, 31~46쪽.
-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40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69~76쪽.
- 손정목, 「나비작전 - 종삼 소탕기」, 『도시문제』 41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78쪽.
-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잔등(殘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17집, 상허학회, 2006, 171~200쪽.
-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역사』 51권, 한국 사회사학회, 1997.6, 143~181쪽.
-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호, 역사학연구소, 2001, 207~243쪽.
- 오태영, 「민족적 제의로서의 귀환(歸還)」, 『한국문학연구』 제32집, 한국문학연구소, 2007, 515~542쪽.
- 윤정란, 「해방 후 국가건설과정에서 우익 진영 여성들의 의회진출운동」, 『역사문화연구』 제24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6.6. 211~248쪽.
- 이배용 외,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IV(1945~1948)」, 『여성학논집』 제13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6.12.
-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1945~1948」, 『역사학보』 제150집, 역사학회, 1996. 159~214쪽.
- 이선이, 「냉전기 동아시아의 ‘성’관리 정책 : 중국과 한국의 ‘폐창정책’ 비교 분석」, 『여성학논집』 제24집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7, 193~232쪽.
- 이혜령, 「해방기 한국소설의 식민기억과 젠더」, 한양대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주최 제2차 한국-프랑스 국제학술대회 ‘점령의 기억과 섹슈얼리티: 한국과 프랑스의 젠더사 비교연구’(2007.11.16.금) 발표 원고.
- 장미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박사논문, 2007.2.
- 정재석, 「해방기 귀환 서사, 결속의 상상력과 균열의 역학」, 『사이間SAI』 제2호, 국제한국문화학회, 2007, 161~193쪽.
-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 『비교문학』 제4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131~157쪽.
- 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현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제54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77~94쪽.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4.6.
-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제3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97~120쪽.
- 최지현, 「해방기 '조선어'와 민족의 기억-전재경의 『최후의 교실』과 이광수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2, 265~288.
- 황종연,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라-현진건의 『무영탑』과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3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7.3, 337~374쪽.

Abstract

A Study of the Campaign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Female Solidarity in the Liberation Period
: Based on the Kim Mal-Bong's Splendid Hell

Choi, J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female solidarity's meaning, in the liberation period of Korean. The female solidarity with the help of women is through the process of purification of body and spirit will return to society. This paper will look at the center of the female solidarity called "the campaign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They thought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re "the founding of a state".

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popularity of Kim Mal-Bong's novels with 『Splendid Hell』, which takes issue with "the campaign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during the chaotic liberation period. The past women who prostitutes are returning to society with the help of female solidarity.

In conclusion,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women are social and political sectors to expand its area of activity. This was possible by the female solidarity.

Key words : Liberation Period(Haebanggi), Return, Licensed Prostitution, Campaign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female Solidarity

■ 본 논문은 4월 15일에 접수되어 5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